

# ‘애플페이’ 카드업계 반응 미지근... 수수료 부담 확대 우려

아이폰 사용자 편의성은 높지만 결제시장 새로운 판로는 아니야 애플, 제휴사 수수료 0.15% 부과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지속 줄어 업계, 수수료 재산정 논의 목소리



애플페이 서비스가 공식 출범했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뉴시스

국내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상륙했지만 카드업계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향후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신시장이 열린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배타적 사용권이 사라졌다. 다른 카드사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것. MZ세대와 알파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아이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로는 현대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 지적이다. 애플은 제휴 카드사에 페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0.15%를 부과한다. 현재 카드사들이 받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0.5~1.5%인 것을 감안하면 애플이 책정한

별도의 결제 수수료는 총수수료에 10~30%에 해당한다.

애플페이의 등장인 결제시장의 새로운 판로가 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카드사들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앱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전환을 시도했다. 애플페이는 자사 페이앱의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삼성페이 또한 별도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삼성페이가 가입자는 1400만명이다. 지급결제시장 점유율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메기’인 셈이다. 삼성페이의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비씨)의 당기순이익은 2조606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4%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수익성 약화의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맹점 수수료를 통한 수익은 20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 영업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는 ‘판매관리비’ 또한 1387억원 증가했다. 당초 카드사의 본업인 수수료 장사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페이 사용을 위해 가맹점과 결제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소비자 및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삼성페이가 유료화되더라도 수수료는 모두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07년 결제 금액의 3.6%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매년 감소해 지난해 1.5%까지 떨어졌다. 카드업계가 수수료 재산정 논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논의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카드수수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논의는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최근 디지털 전환 등 사업다각화에 힘쓰고 있는 추세지만 본업인 결제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당국, 금융권 ‘거수기’ 지적 무색

# 4대금융지주, 사외이사 72% 재선임 성공

선임된 25명 중 18명 현직 사외이사 당국, 자체 개혁 미흡 제도개선 준비



4대금융 본사 전경. /각사

국내 4대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의 주주총회에서 총 18명의 사외이사가 재선임에 성공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사외이사진에 대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내놓으며 지배구조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이사회 개편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한금융 주총을 시작으로 24일에는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각각 정기주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부 통제에 실패한 전임 회장들은 물러나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그러나 견제·감시를 제대로 못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은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연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 25명 중 18명은 현직 사외이사다. 약 72%가 연임한 셈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8명 전원이 연임이었는데 모두 통과됐다. 현 사외이사인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봉·윤재원 사외이사가 모두 유임했다. KB금융은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 중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3인에 대한 재선임도 확정했다.

하나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8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6명을 재선임하고 2명을 신규 선임했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입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이 결정됐다.

우리금융에서는 윤수영 전 키움자산

운용 대표이사,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사는 신규 선임으로 2년, 정찬형 이사는 재선임으로 1년 임기를 수행한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회사들은 이들의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적극 내세웠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비판하며 연임 후보 반대를 권고했고, 국민연금 역시 사외이사 연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사외이사들이 CEO를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법적 처벌 과정에 놓인 CEO의 연임을 지지함으로써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서 금융당국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의 셀프연임을 지적하고, 그 배경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회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소 관계를 이용해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이사회 정례회의 추진

그럼에도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가 대부분 연임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은 굽지 않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가 주총을 통한

자체적인 사외이사 교체나 역할 강화에 나서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학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개선이 마무리될 경우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외이사도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 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지주 이사회 정례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월 이후 여러 논의를 준비 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 새로 취임하신 CEO 및 이사회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학계 연구 결과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사회와 면담해 온 유럽 등 금융 강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오히려 일괄적으로 교체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보통 2~3년의 임기를 둔다는 걸 생각할 때 한번에 과반 이상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사외이사 운영을 교체 비율 등 산술적으로만 보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4대연금·카드대금 계좌 변경하면 경품”

우리은행, 6월 말까지 이벤트 진행 해당고객 응모시 최대 4만원 캐시백

우리은행은 4대연금 수령 고객과 개인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변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4대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이벤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연금입금계좌를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고객에게는 4만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고 이벤트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개인신용카드(우리카드 제외) 결제

계좌 변경 이벤트는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WON뱅킹에서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단, 경품 증정일까지 카드결제대금 1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변경 카드사당 2만원씩 최대 4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이 증정되며 이벤트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IBK비즈니스 컴퍼니카드’ 10만좌 돌파

IBK기업銀, 기업고객 비대면 카드 업계 최초 세금납부도 포인트 적립

IBK기업은행이 기업고객의 비대면 카드발급을 위해 출시한 ‘IBK비즈니스 컴퍼니카드’가 지난 21일 발급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용 ‘IBK비즈니스카드’는 업계 최초로 세금(국세, 4대보험) 납부 금액에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연회비가 저렴해 기업카드지만 개인카드 이상의 알짜 혜택을 담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모바일 앱(App) ‘i-ONE뱅크(기업)’ 또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 ‘IBK비즈니스카드’를 신청하면 실시간 자동심사를 통해 발급가능 여부와 한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결제계좌가 없는 사업자도 본인인증 한번으로 계좌개설부터 카드 발급 신청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용 ‘IBK컴퍼니카드’는 전월실적조건 없는 무제한 포인트 적립, 연회비 면제, 이용내역 앱 무료알림 등 심플하지만 강한 서비스를 담고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IBK컴퍼니카드’를 신청하면 365일 100% 비대면 거래로 기업카드를 추가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지정카드 발급 즉시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에 등록이 가능해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디지털채널 판매를 위해 출시한 카드가 고객분들의 성원 덕분에 기업카드로서는 이례적인 흥행에 성공했다”며 “하반기에는 법인사업자의 최초신규발급도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시행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